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GLOBAL TOP 10 CITY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10월 28일(월) 총 5매	세계 10대 도시 인천	
담당 부서	물류정책과	담 당 자	• 물류정책팀장 • 담당자	이양숙 ☎ 440-3871 천주현 ☎ 440-3872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14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1호 반값택배 발송 ... 내년엔 57개 지하철역서 접수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전체〉

- 소상공인 배송비 1,500원부터 전국 첫 시행! 소상공인 물류 부담 줄인다 -
-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입률 25% 증가와 매출 10% 상승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8일 인천시청역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의 오픈 행사를 개최하고 ‘제1호’ 반값택배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전 역사인 57곳에서 반값택배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이선옥 인천시의회 제1부위원장,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 조현민 (주)한진 사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서포터스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경과보고, 소상공인 현장 영상 상영, 서포터스 발대식, 테이프 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직접 1호 반값택배를 접수·발송하며 사업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지하철을 활용한 집화센터를 통해 소량의 물품을 모아 택배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배송비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집화센터에 물품을 입고하면 1,500원부터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픽업을 요청할 경우 2,500원부터 배송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시장 신규 진입률이 25% 증가하고, 연 매출액이 10% 이상 상승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활용하여 물류를 운송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반값택배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배송비로 물류 경쟁력을 제공하며, 다양한 서비스와 품질 향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라며 “인천의 37만 소상공인이 사업을 확장하고 번영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번 오픈을 시작으로 거점 집화센터 1개소와 인천도시철도 1·2호선 내 서브 집화센터 5개소, 집화센터 30개소 등 1단계 사업을 시행하며, 이후 2단계 사업을 통해 인천도시철도 57개 역사로 집화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운영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마련, 2단계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반값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약 50%가 지하철역 반경 300m 이내에 있어 전체 역사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1단계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특히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 사업인 만큼 진행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반값택배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고객센터(1544-6213)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협업하여 50명의 노인 인력을 각 역사 집화센터에 서포터스로 참여하도록 해 청년들과 함께 활동하게 하며, 내년에는 노인 참여 인력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붙임> 참고 자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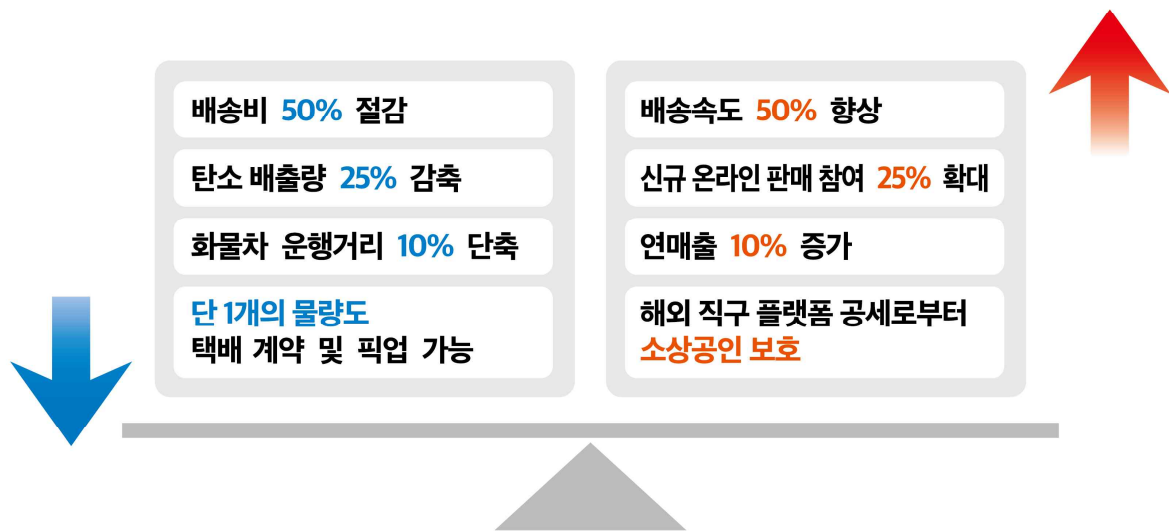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 ‘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집화센터 구성(1단계, 30개 역)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지원사업 기대효과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7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단계별 운영)

구 분	기 간	운영시스템
1단계	‘24.10.~ ‘25.9.	거점 집화센터(1개소), 서브 집화센터(5개소), 지하철역 집화센터(30개역), 운영인력 177명, 전기화물차 30대
2단계	‘25.10.(예정) ~	거점 집화센터(1개소), 서브 집화센터(9개소), 지하철역 집화센터(57개역), 운영인력 301명, 전기화물차 30대

- 사업내용 : 지하철 활용 소상공인들의 물품을 일괄 집화·배송 지원
 - 지하철역 집화센터 직접 접수시 2,000원/건 절감(업체당 연간 120건 한도)
 - 업체방문 픽업 접수시 1,000원/건 절감(업체당 연간 한도 없음)

□ 그동안 진행사항

- 2024. 4. 1 :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 2024. 8. 30 : 인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택배 배송사 선정
 - 일반배송 : (주) 한진, 당일배송 : (주) 브이투브이
- 2024.10.28. : 인천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시행
 - ※ 2024년도 10월 25일 현재 운영실적
 - 계약업체 누계 : 2,500개, ‘24년도 누적 배송량 : 20만개

□ 향후 추진계획

- 2025. 3. : 1단계 사업 성과 분석(2단계 확대 방안 등)
- 2025.10.(예정) : 2단계 운영시스템 구축 및 확대 운영